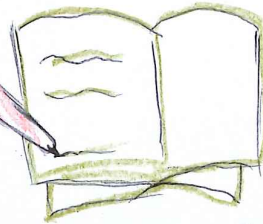






차례



1 기억에 남는 시, 시화로 꾸며요



· 비누방울 (명하늘)

· 눈 (배영찬)

· 점심시간 (김건우)

· 잠자리 뱀터 (박유빈)

· 훈지서 (천우현)

· 강아지 (박우혁)

· 빗방울 (신민주)

· 강아지 (장서운)

· 풀꽃 (신민지)

· 강아지 (방선우)

· 기다려지는 봄 (이소윤)

· 무지개 (심하연)

· 지는해 (김하람)

· 비누방울 (김아연)

· 눈 (장현진)

· 비누방울 (구도윤)

· 군밤 (임서준)

· 새종이 (이해준)

· 눈 (이유주)

· 비누방울 (정세인)

· 미술시간 (지수빈)

· 강아지 (김도연)

· 까만 밤 (박진우)

· 사과밭에서 (한재원)



2 내 친구에게 책을 추천해요



· 어린왕자 (신민주)

· 두근두근 편지집 (김도연)

· 대직업기대배터 (천우현)

· 랑랑형제때집 (김하람)

· 워피카드 (장서운)

· 슈퍼토끼 (장현진)

· 마당을 나온 암탉 (구도윤)

· 아무도 본 적이 없는

· 공주팔귀 (이유주)

· 구도 인천 (박우혁)

· 무시 무서한 공룡들 (임서준)

· 여름이 반짝 (심하연)

· 고양이 히어로즈의

· 지구는 어디든 동물원이야 (정세인)

· 슈퍼토끼 (박진우)

· 비빔밥 만들기 (박유빈)

· 귀찮아, 병에 걸린 잡스씨 (신민지)

· 이상한 암마 (이해준)

· 구름빵 (방선우)

· 세계 최고라는 꿈을 이루

· 두근두근 편지집 (명하늘)

· 윤봉길 (배영찬)

· 야구왕들의 이야기 (한재원)

· 마름버스 (지수빈)

· 전청당 (김건우)

· 밀림을 지켜라 (김아연)

· 감률기차 (이소윤)



바방울

그림: 평생

글: 옥일신

바방울 날아라,
바람 타고 동동동.
구름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바방울 날아라,
지붕 위에 동동동.
하늘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잠자리 쉼터

그림: 박유빈
글: 남호선

손을 꼭 뻗어

검지를

 하늘 가운데 세웠더니
잠자리가 앉았습니다.

내 손가락이

 잠자리 쉼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가 되었습니다.



빗방울

유경환 글
신민주 그림

비오는 날
빨랫줄에 흐르는
빗방울 본다

한 방울 맞히고
또 한 방울

조르르 흘러가서
팍 꺼안아
큰 한 방울

비오는 날
빨랫줄 빗방울에서
무언가 배운다.

강아지

그림: 방현우

글: 문삼석

달랑달랑

줄랑 줄랑

꼬리치며

따라오고,

줄랑 줄랑

발랑 발랑

따라오다

재주넘고



지는 해

그림: 김하람

글: 정유경

친구와 싸워 진 날 저녁
지는 해를 보았네.

나는 분한데
붉게
지는 해는 아름다웠네

지는 해는 왜
아름답냐?

지는 해 앞에 멈춰서
나는 생각했네.

지는 것에 대해서.



비누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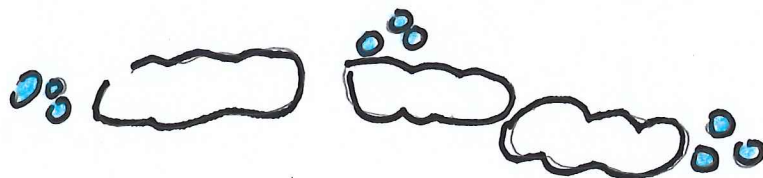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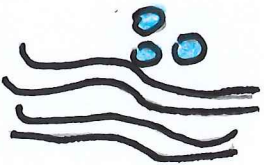
그림: 구도윤

글: 박일선

비누방울 날아라,
바람타고 둥둥둥.
구름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비누방울 날아라,
지붕 위에 둥둥둥.
하늘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눈

그림: 이유주

글: 윤동주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죽워 한다고

덜어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엔

*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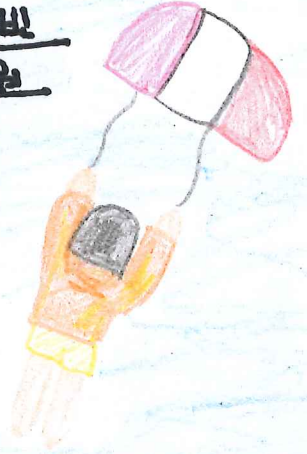


미술시간

김지선
글 정은원

하얀 도화지에
파란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 그리고

어새 나는
잠재가 되어
나를
푸른 도화지 위에 놓았다



제목

까만 밤



그림 박진우

글 정유경



비바람 강 노랑 파랑이

폭격 안아 감정이

검정이 되었대

깜깜한

밤

오늘 이 밤엔

무엇, 무엇, 무엇이

꼬옥

껴안고 있었을까?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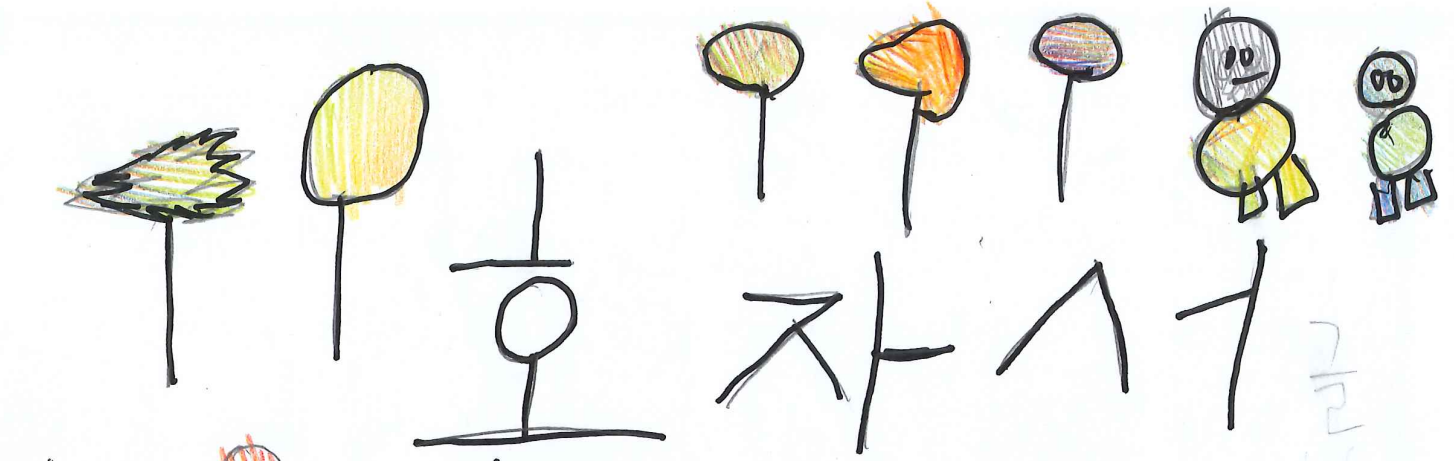
그림: 배영찬

글: 윤동주

지난 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 이랑
길이랑 밧이랑
추워 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호 자 사 기

그림 전이한글글나태죽



무리 지어 피어있는 꽃보다

독서에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 도란 더 외롭도록 대가 있다

독서에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대가 있다

너 혼자 외롭기

꽃은 조서있음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강아지

그림 장세운
글 문상석

달랑달랑
꼬리 치며
줄랑줄랑
따라오고,

줄랑줄랑
따라오다
달랑달랑
재주 보고.



기다려지는



국산현득

그림: 이소윤



앞 뒤 발에 냉이가 돌아나면,
엄마는 예쁜 아기를 낳는다 하고.

설구꽃 필 즈음에, 큰 암소는
귀여운 송아지를
낳을 기요.

아버지는
앞뜰에서 제일 좋다는,
선돌 옆 두 마지기 논을 산다 하고,

오빠는
이층집 읍내 중학교에,
까만 양복에 까만 모자 쓴
중학생이 된다 하고,

엄마랑 아버지는 요즘 밤
곧장 이야기가 길고,
주무시지 않는다.

나도 오빠도
자는 척은 하지만,
엄마 아버지 하시는 얘길
다 듣는다.

그리고 오는 봄의 좋은 일들을
꿈꾸듯 그려 본다.

- 아기를 업고,
송아지를 몰고,
그렇게 바다가 좋다는
선돌 옆 논이랑,
까만 양복에
중학생이 된 오빠 모습이랑.

비누방울

그림: 김아연
글: 옥임신

비누방울 낚아라,
바람 타고 둥둥둥.
구름까지 올라가,
둥실둥실 두둥실.

비누방울 낚아라,
지붕 위에 둥둥둥.
하늘까지 올라가,
둥실둥실 두둥실.



군밤

그림 이름: 임서준

글: 박방희

군밤 굽는 냄새가
골목길을 휘젓는다.
군가 발롬거리자
목젓도 날름날름

오백원
백동전 물고
생쥐들도 줄 서겠다.



예수 방울

성서인

예수 방울 날아라
바람 타고 도동동
구름 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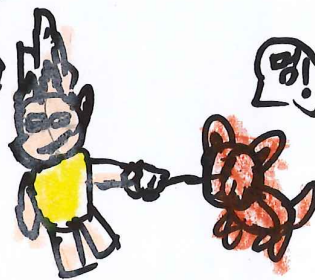
예수 방울 날아라
지붕 위에 통통통
하늘 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강아지

그림감도연
글문삼선



다랑달랑
꼬리치며
줄랑줄랑
달라오고,
다랑달랑



줄랑줄랑
달라오다
바랑바랑
재주넘네.

사과밭에서

“우리 아기 얼굴 빛이 왜 이러지요?”

엄마 사과가

아기 사과를

그림 (한재영)

(방학)

꼭 잘 먹어

꼭 잘 먹어

“이것이 사과입니다.”

맛있는 사과입니다

아기 사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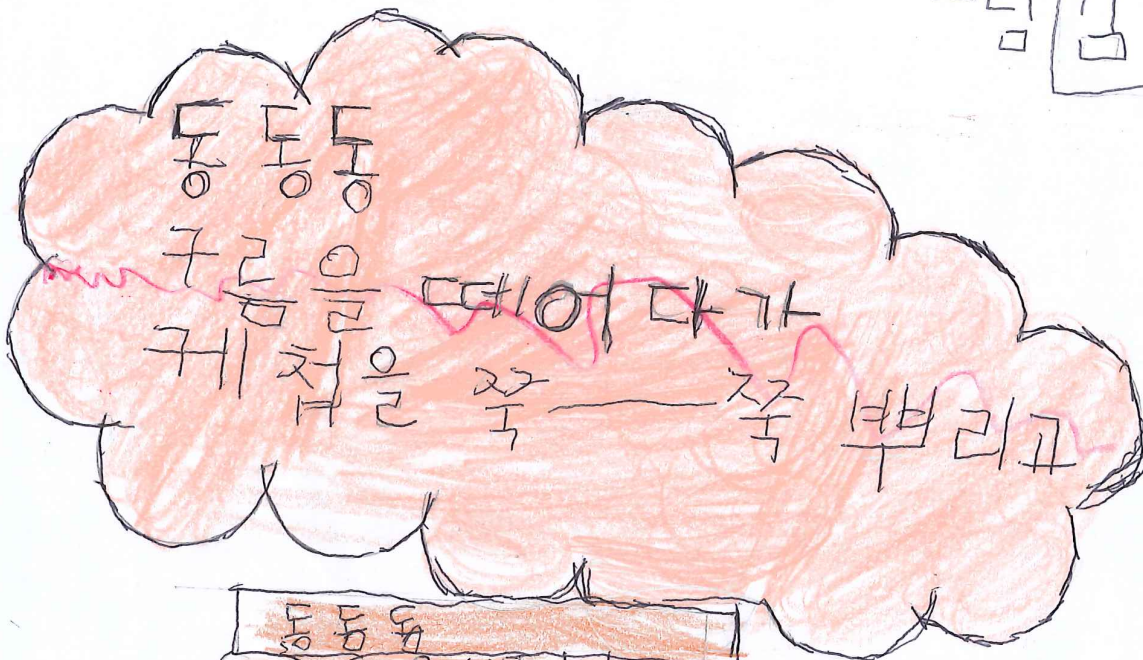
꼭 잘 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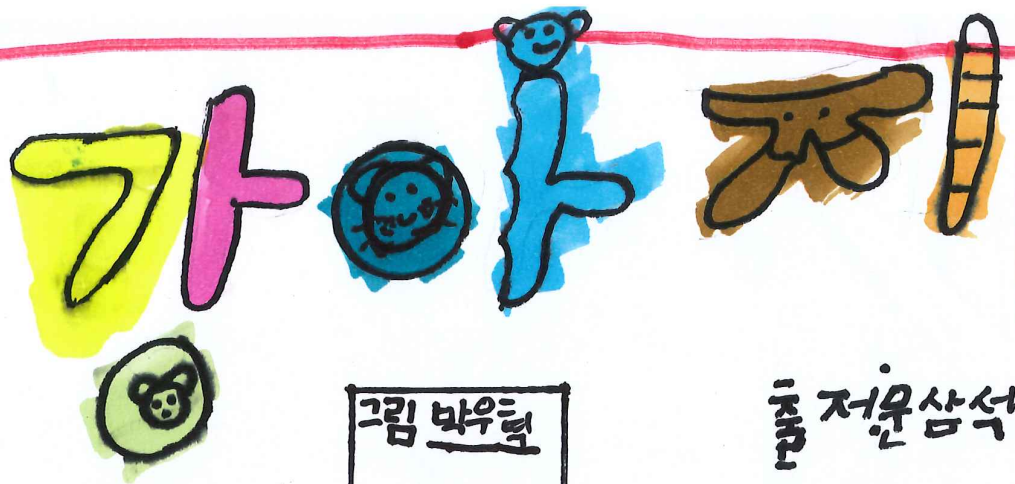


저녁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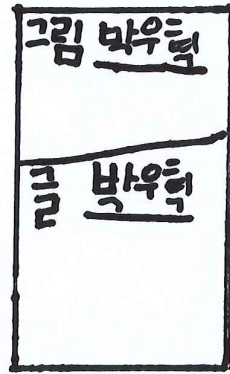
7월 17일

그림집 7월 17일





다랑다랑
리치며
줄랑줄랑
따라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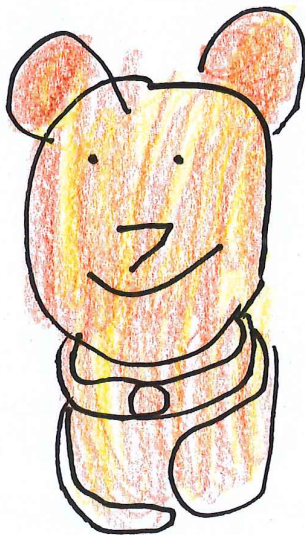
좋은 저문삼석

줄랑 줄랑
따라오다
발랑 발랑
재주넘고.

사랑 *
강아지



바꾸기



프
글
기
즈

나태주 작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무지개

그림: 심하는 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마다
내 가슴이 설레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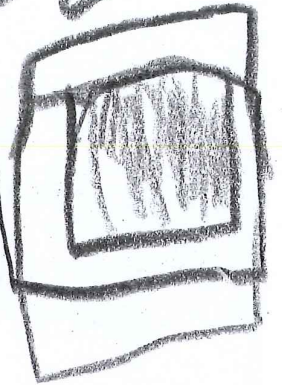
내가 어릴 때에도 그랬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쥬얼, 예수 살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을 거예요.

*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내 하루하루가
자연 속에서 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림: 장현권

눈



글: 윤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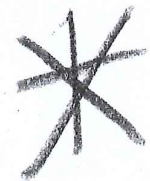
지난 밤에

눈이 소복이 와네.

지붕이랑, 길 이랑, 밭 이랑

추우니깐 다고 덮어 주니 뭐야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이 색종이 속에
세상이 있다



그
최영심
이름



꿈 빛깔처럼



좁고 작은 색종이 속에
우리 나라도
우리 집도



모두 들어있다
색종이 속에
모두 들어 있다
갖고 싶은 것이

모든 컴퓨터도
스캐너도
모두가
가워만



도 있어
있으면
부러울 것 없다

만약에
모두가
상상
세상에서
제일
가장
방도
늘어
두면
가는
부자

「어린 왕자」를 읽고! 글: 신민주

공금해서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게 됐다.
표지에 어린 왕자를 보니 내용이 궁금해졌다.

나는 비행기가 망가져 사막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 친구가 되어
어린 왕자는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여우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한 부분이 감동이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
을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이렇게 만큼 생각할 줄은 몰랐다

이 책으로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었다. 중요한 건 마음이기

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나는 위문장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

그 이유는 겉모습이, 또는 아예 말라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이 책을 끝내고 판단하는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마음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



<랑랑 형제떡집>

글: 김하람

친구가 이 책을 추천해주어 읽었다.

책표지를 보니 책 내용이 궁금해졌다.

어느날 밤에 누가 떡집에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개구리가 있었다. 삼신할머니가 꼬랑지를 도와주라고 해서 왔는데 꼬랑지가 랑랑 형제를 도와줘야 했다. 그래서 개구리한테 떡을 배달시켰다. 떡을 잘못 배달해서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떡을 만들고 배달했다는 내용이다. 꼬랑지가 친구를 도와 주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그 이유는 친구를 도와주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책으로 인해 책들이 재밌다는걸 알게되었다.

나는 이 책을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친구가 이 책을 좋아할것 같다.



<마당을 나온 암탉>

글: 구도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웅은 개닭은 허름한 집에서 딱같은
 일흔채기 있어서 한바퀴 돌게되었습니다. 이채를 인입했을때는
 제몸을 낮추고 ^{새끼} 마당을 나온 암탉 이어서 아~ 암탉의 담백한
 내용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내용은 암탉이 밖이 양계장에서
 함께 지내다가 폐계를 당해서 청동오리랑 같이 마당에서 지내다
 알을 낳았을 때 나기려 해서 나갔다. 알이 깨졌는데 다른 새
 커서 새는 다 죽어먹고 자기 아밖은 죽어버린것을 내용이다.
 인상 깊은 장면은 이새끼 다른 새끼의 알을 품었다 버려진 알을
 알았지만 오라졌다 장면이 신기하다 외산한 그림에는 처음에 오리가
 아닌 병아리 같았는데 오리고하게 되었다. 「엄마는 마당으로 가요. 난 우리에
 걸 티야!」 대한 행동과 생각은 나라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외산한 그림에
 있다. 아무도 안보고 걸어다니는 새끼는 새끼의 새끼를 낳아주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한다.
 인상스러운 장면



구도 인천

인천프로야구
40년

1. 조지정 2. 박경완 3. 박정권 4. 김광현의 이야기
조지정은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전 삼성 라이온즈의 홈런왕인 이석엽
기록을 깨고 모든 기록을 깨고 현재 492 홈런이다 사람들은 최정
다년제 박정권은 기동적이다 조지의 동생은 최항이다
최항 선수 현재 로테자이다. 박경완은 2007년도에 SK
와 이번 시즌 한국시리즈 첫 우승을 차지했고 박경완은 무려
7번 홈런을 기록했다 1991년 삼성물레이더스에 연습생 육성
선수로 입단한 박경완은 1994년부터 포수로 발돋움하며 4할이
넘는 도루지지를 현대 유니콘스에서 정규 시즌 MVP 홈런왕 골든글러브
수상했다 스무살 나이에 혜성처럼 나타나 SK와이번스 홈런왕 골든글러브
김광현은 대한민국의 에이스라 불리고 2022년 김광현의 KKK 완봉승을 했다
박정권을 와이번스 해설사다



이 책을 재원이 한테 소개하고 싶어 재원이 야구를 좋아 해서	이 책은 인천야구라면 꼭 봐야 해.	인천은 야구가 좋다.
--	------------------------	----------------

KBO

박우혁

고양이 히어로즈의 비빔밥만들기

-박욱빈-

1. 읽게된동기 = 책의 표지가 귀여워서 읽게 되었다.
2.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떠오른 생각 = 표지가 귀여워서 호기심이 듬.

- 간단 줄거리 = 고양이 히어로즈가 다같이 협동을 해서 비빔밥을 만드는 이야기
1. 인상깊은 그이유 = 돌이켜 고득장을 뚫어 작은 재미가 거대한 일
 2. 새롭게 알게된 내용 = 다같이 협동하면 일이 더 쉬워진다.
 3.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 = 만약 나라면 칭찬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재미가 히어로즈에 합적 하기 때문임니다.
 4.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 작가는 '협동'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것 같다.
 5.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문장과 그이유 = '고마워요' 라는 단장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1. 이책을 읽고 비결 나의 생각이나 행동 = '친구를 배려해주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듬.
2. 앞으로 나의 각오(다짐) = 나는 앞으로 친구를 배려 해 줄꺼다.
3. 이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와 그이유. = 소원, 수빈이에게 추천해 주고싶다. 왜냐하면 그림책이 귀엽기 때문입니다.

< 구름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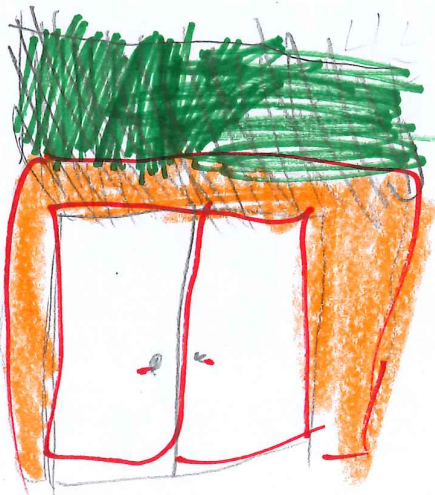
방선우

읽게 된 동기	책표지 그림이 예뻐서 궁금해서 읽게 되었다.
즐거이	동생과 언니가 비가 와서 밖으로 나갔는데 구름이 걸려있어서 구름 으로 빵을 만든다.
인상 깊은 내용, 그 이유	구름으로 빵을 만드는 장면 이 인상적이었다.
인물의 말과 행에 대한 나의 생각	언니와 동생은 구름을 가지고 갔자 나라면 구름 다시 떨어뜨릴 것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문장	작은 구름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작가가 전하고 싶던 마음은 무엇일까?	아빠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 같다.
4컷만화 (글)	
구름빵을 먹은 아빠도	둥실 떠올라
훅훅훅 날아서	금세 회사에 다다랐어요.

제목 윤봉길

이름 배영찬

독립운동을 알고 싶어서 읽었다
표지에 태극기랑 농민독분이 있었다
일본왕에 생일 파티에 가서
도시락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왕이랑 일본인이 수없이 죽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것을
대만하다고 생각한다.
윤봉길이 사형 때문에 죽었어
나는 몰랐다. 만약에 내가
윤봉길이었다면 나는 목숨을 바친것을
착가는 나라 해 위해 희생한 사람
을 잊지말자에 뜻으로 쓴것 같다.
나는 앞으로 윤봉길 잊지말자를 타집하겠다.





< 전청당 >

정병우

전청당을 읽거다, 친구가 알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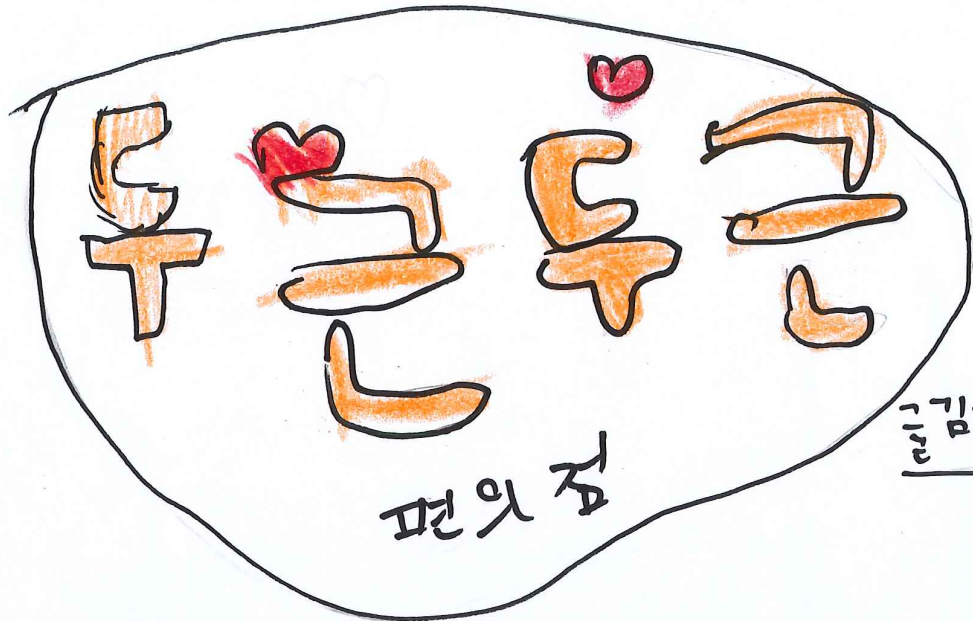
전청당을 읽게되었다, 표지의 이상한
젤리를 보니 먹으면 어떡 해 질시궁금하다

내용 : 나는 학교에서 랑따를 당했다
맨날 당했다 나는 학교가 끝나고
신호등을 건너 집을 가고있으려
가자기! 연기가 사사 의 연사 이상한 과자가
가 생겼다 나는 아무것도 몰르고 들이
갔다 거기 의 주(요미) 젤리가 있어
고걸 사서 먹었다 내가 김사기
귀여워 줬다 나도 이제 랑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 했대! 이런 이야기

게책 을 읽고 랑따를 당한게 너무 슬프다

나는 앞으로 친구를 다 돌림을 안 할 것이다

왜냐면 친구가 속 삼하기 때문



김도연

099

편의점이라 써있어서 읽게 되었는데
막상 읽으면 보니까 캐릭터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을 다 털어놓고 젤리 라면땅 등등을 먹고 해결하는 소로
인데 첫 번째는 현명이라는데가 나오는데 현명이는
동생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라는 걸 먹고 화를 풀고
그래서 지두 번째는 여가야가 나온다 여가야는 현명랑
싸우는 게 싫은데 아니야! 싫어! 가 입 밖으로 안나와서
그런데  을 먹고
화가 풀리고
세 번째는
인해라는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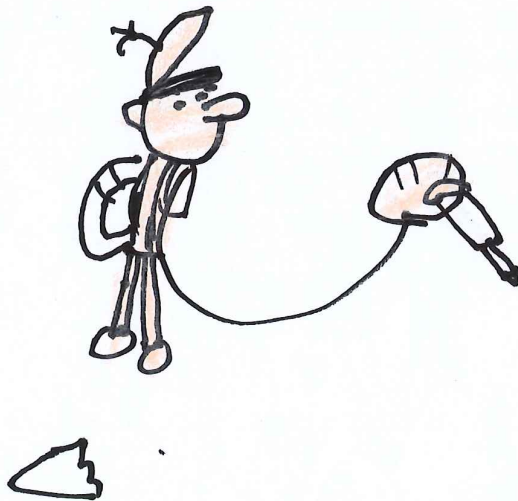
라면땅을 먹고 화가 풀린다아 배배랑
캠핑 장을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급한
일이 왔다고 못 간다고 해서 화가 나는
아이다.



「유평크드」⑩

장서윤

1. 읽게 되던 시기 3학년 때 친구와 읽은 계기로 읽게 되었다.
2. 제목과 표지를 보니 내용이 궁금해졌다.
- ★ 학교 선생님이 퍼지 한 도구를 만들어 대박을 치고 학생들이 너무 많이
: 되어 보전실을 너무 많이 가 문제가 생겨 폐지가 되었지만
: 학생들이 시위를 해 되찾았다.
3. 과학 선생님도 감동적이었다 그 이유는 수업을 다른 주제
: 바꾼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4. 이 책을 읽고 두뇌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만약 나라면 하루에 1개씩 먹었다
6. 작가는 우리의 뇌는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
: 고싶은 것 같다.
7. 나는 이 책을 나시윤에게 추천한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후사 무사한 공룡들 이름: 임시준
오른 지금 공룡 발견의 호기
를 사고 있어요.
리리리

전통적인 기술과
최첨단 기술을 잘
결합하는 방법으로
매년 새로운 공룡
을 50가지씩 발견
해 낸대요!
일주일에만 종류는 발견하는
이죠.

제 목: 지구는 어디든 동물원 이야 이름: 정세원

나는 하루에 두세 번 술을 마시는 데 이 책을 주셔서
 읽게 된 거 같다.
 이 책 제목을 보니 지구는 사람도 있는 게 왜 사람이 동물원일까?
 궁금해졌다.
 청 초롱물, 푸른 동물 떼를 있는 것 새로 알게 되었다.
 누가 사람이 사육사 취급하러 가지 않을까?
 우리는 원래 동물이다 라고 생각했다.
 동물도 사람처럼 생각할 거다.
 나는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다. 오빠는 동물에게도 사랑받고
 할 거다.



• 책의 이름(제목): 귀찮아 병에 걸린 잡스씨
↳ 신현경을 | 윤태규 그림

• 이 책을 읽게 된 까닭(이유): 엄마께서 사 주셨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읽어 보았다.

• 이 책의 줄거리: 잡스씨가 동화 작가인데 크리스마스 ^{전날}, 강아지
들이 문 앞에 있었고, 일단 데리고 와서 이름을 몰래와 몰래와 몰래
라고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지와 할머니를 만나고, ^{이름}가 강아지
죽은(버리고) 간지 말아 넣었다. 그것에 병원에서 한 말이 생각
나서 병원 장에게 물어 보았다. 그러지 맞다고 했다.
그래서 잡스씨는 몰산타와 루돌프가 없어진 줄 알고
잡스씨는 몰랐는데 산타와 루돌프는 화장실에서 있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작별했다(?)

• 느낀점: 저도 귀찮을 때도 있었었는데 '아, 이제 귀찮아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이 들었고, 강아지가 나오
서 내 강아지도라고 불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나라면?: ~~꼭~~ 만약에 내가 잡스씨라면 귀찮아
하지 않고, 강아지들을 잘 돌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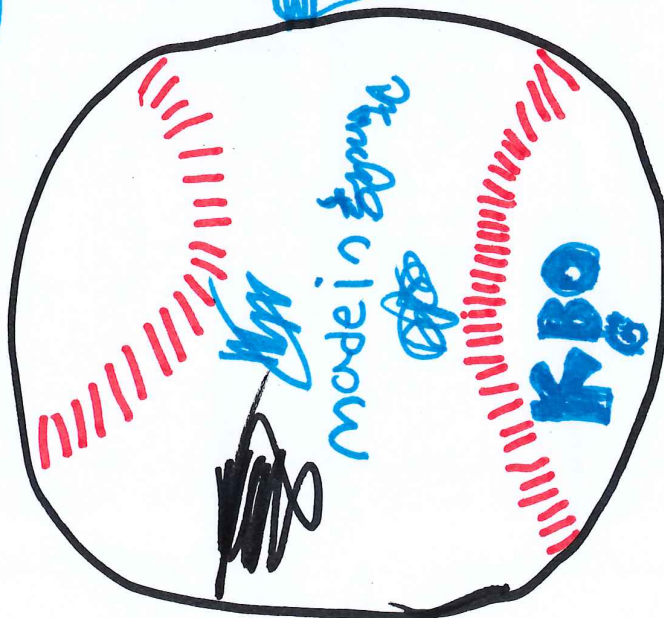
• 추천: 나는 귀찮아 하는 동생에게 추천 합니다.

민지

세계 최고라는 꿈을 이룬 야구왕
들의 이야기

[illegible]

한정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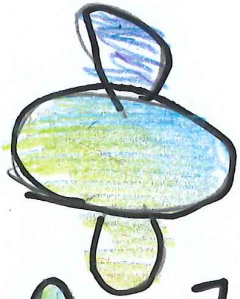


< 밀림을 지켜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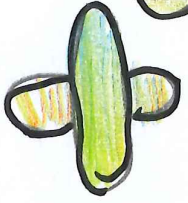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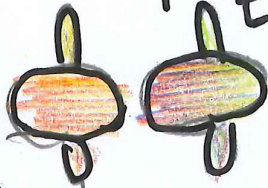
-강아연-

이 글을 읽은 여는 학원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재미있어서 이 책을 선택했다. 이 이야기는
평화로운 밀림에는 사자 1세라는 왕이 있었다.
어느날 호랑이가와 콩고 밀림의 평화를 깨뜨렸다. 왕은
용사들을 보내지만 모두 조그만 강아지에게 호랑이를 데려다 주었다. 이
평화를 깨뜨렸다. 이걸 이야기이다. 나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가젤이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이다.
아무리 약해도 좋은 말로 하면 나한테 모두 착하게
되한다. 나도 앞으로는 더 좋은 말로 말하겠다.
착한 말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추천한다.





< 메직 엘 리베이 터 >



곤충을 알고 싶어서 책을 골: 권무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읽으면 곤충을 더
알게 되고 더 좋다



이 책은 읽으니 곤충이 더 궁금해졌다



나는 개미 등이 글씨가 작고 다 읽기 어려
우다 바뀔래와 곤충은 다 읽는다?

바뀔래는 곤충과 곤충이 아닌 하등

느낌: 곤충이
부서졌다

등 책은 모두 다 읽어서 볼 때는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소감: 새롭고 북분으로 나뉘고 다리가

거대한게 된 내용은

거미처럼 거미

는 곤충이 아니다

곤충에 관심을

가지게 하겠다

6개 있다 다리가 더 많

거나 여는 거미 처럼 이치에

는 곤충이 아니다

<슈퍼토끼>

글: 강현진



재밋어보여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토끼를 보니 빠르고 궁금해졌다.

거북이가 토끼보다 빨리도 착해서

슈퍼토끼가 거북이보다 느린줄 안다.

거북이가 슈퍼거북 되서 재밋었다.

이 책을 읽고 토끼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토끼에 대해 궁금해졌다.

만약 나라면 경기를 다시 했을거 같다

작가는 토끼가 빠르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 같다.

왜 그래라는문을 광을 기억하고 싶다

나는 이 책을 사훈 등 생에게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만 날 전기만 해서 이다.

공주 팔주

글: 이유주



내가 이책을 읽은 까닭은 책 표지가 귀엽보작하고
제목도 만능이 들어봤던 거라 한번 읽어봤다.
일단 줄거리는 공주의 엄마가 죽어서 팔주의 집안에서
언처 살았을 때 팔주의 엄마는 공주를 싫어했다.
하지만 공주가 힘들 때 동물 친구들이 다가와 도와주었다.
나중에 멋진 왕자와 결혼을 한 이야기다. 이책에서
가장 인상깊은 장면은 동물 친구들이 공주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장면이다.
그 이유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금했던 게 왕자와 팔주랑 결혼을 할 때
팔주 형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공주는 다 같이 사이좋게 진내라고 했다. 
내가 공주였다면 팔주네 가족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진 못겠다.
마지막 각가의 말하와 하는 내용이 '팔주처럼 베풀지 않으면
언젠간 벌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다.
오래동안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각가 한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팔주처럼 나쁜 행동은 타게 하고
공주처럼 베풀어주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입니다. 언니는 원래도 좋은 사람이지만
더 좋은 언니가 되라는 뜻이다



여름이 반짝을 입고
심하운

- ①. 읽게 된 이유: 아침에 심심했어.
- ②.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떠올린 생각:
사이가 좋아보여 사이 좋은 친구 만들기
갔다.
- ③. 줄거리: 주인공 친구가 교통사고로 갔다.
- ④. 인상 깊은 장면: 반가운 목소리에 온 곳에서
- ⑤. 인물의 말과 행동: 주인공이 비명을
만냈지만 나는 막을 열 할 것이다
- ⑥. 앞으로 나올 각오 (다짐):
앞으로 동생 어 라 안 싸 물 거 다.
- ⑦. 이 책을 추천 해주면 싶은 친구: 나는 동생
에게 추천하고 싶다.

제목 슈퍼토끼

이름 박진우

달리기를 좋아 해서 일었다.

슈퍼토끼 제목을 보니 궁금해서 일었다.

슈퍼토끼가 거북이에게 지고 달리를
하지 않는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지고

달리를 하지 않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만약 나라면 경기 중 방심을 하지 않는다
이유 느리다고 방심하다가 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방심 하지 않는다
고 생각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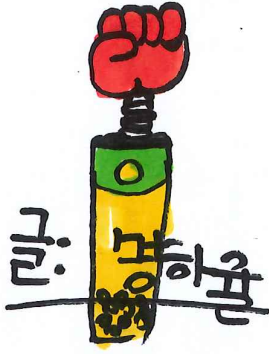


<이상한 엄마를> 읽고

글: 이혜돈

- ① 읽게 된 동기: 알았는데 기억이 안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 ②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든 생각: '왜 이상한 엄마지?' 이렇게 궁금해졌다
* 필수가 단 한 줄거리: 호호가 아픈데 엄마는 일 때문에 가지 못해서 이상한 엄마에게 부탁을 해 호호를 돌본다는 이야기이다
- ③ 인상 깊은 내용 이유: 마지막에 호호 얼굴이 그려진 우브라 이스가 있는 장면이 매우 감동이었다
- ④ 새롭게 알게 된 점: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 ⑤ 앞으로의 나의 각오: 나는 앞으로 남한테 친절해 질 것이다
- ⑥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친구: 나는 이 책을 아연이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두근두근 편의점」



나는 내 어릴적이 생각난 계기로
읽었다.

나는 현명의 삶을 보니 현명이가
동생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궁금해졌다.

현명이가 동생만 이버지는 꼴을

보고 화나서 편의점에 갔다는 기

사가 이다 나는 현명이가 동생



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인상깊었다 아유는 동생을 다

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누나와 비슷해 기 때문이다 나는

아제부터 친구한테까지 갔었다 그리고 화날때마다

내 어릴 적, 누나 어릴 적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누
나의 힘든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쓰를 읽고



나는 책또는 제각각 알게 되었다 책표지에 꽃잎이 그려져 있는데 이쁘게 때문이다.

마을버스에 같이 사라졌어요! 말도 많은 짹짹한 밤에 열어진 인어가요 공아저씨고개를 갇
 했어요 공아저씨의 이름도 따로있지만 크고 둥글둥글해서 '공'아저씨라고 불러요 공아저
 씨는 마을 '오류종'을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빨바진 거리처럼 허전했죠 짹 공아저
 씨는 작은 창문들로 '오자아래'의 물에서 마음쓰가 돼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상인들이 떨어질까 공아저씨가 천천히 원을 그리는 천천히하는 사람들의 물결은 놓아드립니다
 버스 안에서 꽃잎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병들머리아이가 크게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쓰는 꽃이 피었어요" 인가 등반이 뒤에 적힌 고고글이었던 것 꽃잎은 자꾸자꾸 나와와
 손등, 귤등, 신발 위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큰길 정류장에서 멈춰 사람들이 열
 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아저씨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음쓰 명이 찾아와서 사람들은 잠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바종 지났을까요? 산꼭에서 큰그림자와 같은
 그림자가 뒤뚱뒤뚱 내려와 있습니다
 "마음쓰 우리 뭐가 저러가요?" "이름 공아저씨 마음쓰가 필요하게" 말하는 그림자같은 진짜 마
 달은 아바라아바였습니다. 짹짹한 밤이라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소원이에게 이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마음쓰는 가장 능력이 많기
 때문이다



『감귤 기차』를 읽고

이소은

책을 읽게 된 계기: 책표지가 예뻐고 감귤을 좋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미나라는 아이가 주인공이다. 어느날 미나는 할머니와 감귤을 먹고 있었는데

감귤이 있는 바구니에서 작은 동이가 나와 확인을 했는데 그건 기차표였다. 미나와

할머니가 쿵쿵 먹고 할머니는 잠에 드셨다. 그때 밖에서 기차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말 감귤기차였다. 미나는 그 기차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기차를 타고 간다.

책을 다 읽고 재미있었던 장면은 미나가 기차를 타고 감귤숲에 왔을때 꺾꽂이 복숭아

자 무수한 감귤 꺾꽂이 러지는데 그 꺾꽂이들이 합쳐져 미나의 열차와 미나의 옆에 있던

친구의 열차를 만들었단게 재미있고 신기했다. 그리고 그림책도 내 기쁜 몽글몽글한

그림책이 마음에 들었다. 책을 소개해 줘 싶은 친구는 수빈이라는 친구

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감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